

일제시대 한의학잡지 연구

경희대학교 의사학교실 정지훈

Research into academic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in the era of Japanese imperialism

Jung Ji-Hun

There were six academic journals on oriental medicine, published in the era of Japanese imperialism(1910-1945). Six academic journals are 『Han bang eui yak kyei 漢方醫藥界』, 『Dong eui bo gam 東醫報鑑』, 『Dong seo eui hak bo 東西醫學報』, 『Cho sun eui hak kyei 朝鮮醫學界』, 『Dong seo eui hak yeon ku hoi wol bo 東西醫學研究會月報』, 『Dong yang eui yak 東洋醫藥』. These journals were published 33rd volume with sequence.

Research into these journals has derived the conclusion that the academic trend at the time were, firstly, the interaction between western and eastern medicine, secondly, researches on 『Nai Kyung 內經』, 『Sang Han Ron 傷寒論』 and finally, promotion of development of oriental medicine by looking at the advantages of western medicine.

I. 서론

日帝時代는 일제의 탄압에 대한 우리민족의 투쟁이 점철된 시기였다. 일제는 합방초기부터 계속되는 한민족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여러 가지로 폭압적 무단정치를 실시하였다. 한의계도 이러한 무단정치에 의해 신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한의계는 여러 각도로 韓醫學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일제의 탄압에 의한 좌절을 겪었다.

이러한 탄압 가운데 하나가 韓醫學을 없애려는 시도이다. 조선의 의사제도를 일본과 같이 西醫 단일제도로 만들려고 한 것도 그러한 시도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조선에 있는 부족한 숫자의 西醫로는 식민지 국민들의 의료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일제는 1913년에 醫生제도¹⁾라는 애매모호한 제도를 만들어 東醫²⁾들을 여기에 등록시킴으로써 신분을 격하시켰다. 이처럼 ‘醫生’이라는 격이 낮은 신분으로 격하되는 것은 韓醫들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었다. 당시 한의들은 일제의 이러한 기도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였다. 한의단체의 설립, 韓醫學교육기관의 운영 등이 그러한 노력이었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운동의 차원이 아닌 학술적 투쟁도 있었는데, 韓醫學術雜誌³⁾의 간행이 그것이다.

본 논문은 日帝時代에 간행된 韓醫學術雜誌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 시기 한의계의 동향, 당시 한의들의 韓醫學을 지키기 위한 노력, 韓醫學의 학술적 경향, 그리고 學術雜誌의 의의 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서술하였다.

이를 위하여 本論에서는 먼저 日帝時代 韓醫學術雜誌의 발간 연혁, 韓醫學術雜誌의 발간 목적, 韓醫學術雜誌의 내용 등을 밝혔다. 그리고, 韓醫學부흥론의 대두, 韓醫學교육 강화론, 위생론의 대두 등의 소제목으로 한의계의 동향을 살펴보고, 또한 溫故知新的 韓醫學, 韓醫學과 서양의학의 匯通 등의 소제목으로 韓醫學術경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韓醫學術雜誌의 의의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일제시대 한의학술잡지의 발간 연혁

일제시대에 발간⁴⁾된 한의학술잡지는 다음과 같다.

① 『漢方醫藥界』 : 1913년 10월(제 1호) - 1914년 1월 15일(제 2호) : 총 2권 발행

- 1) 당시의 현실이 西醫를 많이 양성하여 東醫를 한꺼번에 말살하기가 어려움을 깨달은 일제가 서의인력이 양성될 때까지 과도기적인 성격으로 東醫들을 활용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 2) ‘東醫’란 한국의학의 독자적 전통을 나타내주는 용어로, 현대의 ‘韓醫師’를 말한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韓醫’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 3) ‘한의학술잡지’란 한의학관련 학술잡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본 논문에서 사용하였다.
- 4) 본 논문에서는 서울에서 발간된 잡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 충남에서 발간된 『충남의학』, 평양에서 발간된 『의약월보』 등에 대해서는 이후의 연구에서 밝히고자 한다.

- ② 『東醫報鑑』 : 1916년 1월 1일(제 1호) - 1916년 3월 1일(제 2호) : 총 2권 발행
- ③ 『東西醫學報』 : 1916년 6월 26일(제 1호)-1917년 6월 30일(제 8호) : 총 8권 발행
- ④ 『朝鮮醫學界』 : 1918년 3월 15일(제 1호)-1919년 9월 15일(제11호) : 총 11권 발행
- ⑤ 『東西醫學研究會月報』 : 1923년 12월 31일(제 1호) - 1925년 10월 18일(혁신 제 1호) : 총 7권 발행
- ⑥ 『東洋醫藥』 : 1935년 1월 1일(제 1호) - 1935년 5월 1일(제 3호) : 총 3권 발행

日帝時代 한의계에서는 韓醫學 학술을 진흥시켜 일제의 민족의학 말살정책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데에 뜻을 모으고 韓醫學術雜誌의 간행을 추진하였다. 그 효시는 『漢方醫藥界』이다. 이 잡지는 1913년 10월에 朝鮮醫生會⁵⁾에서 洪鍾哲⁶⁾을 발행인으로 하여 발행되었다. 이 잡지의 첫머리에 나오는 崔在學의 ‘漢方醫藥의 改良’이라는 논설에서 진찰기구의 개량, 약제의 개량, 병원설비의 개량 등을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이 잡지를 간행한 것은 韓醫學의 계몽을 그 주 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잡지는 1914년 1월에 제 2호를 내고 폐간되었다.

『漢方醫藥界』의 폐간은 韓醫學을 부흥시켜 민족의학으로써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자 의도한 수많은 한의계 인사들에게 좌절을 안겨주게 되었다. 이에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 韓醫學術雜誌의 재간행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1915년 서울에서 일제에 의해 共進會라는 산업박람회가 열리게 되었다. 전국의 동의들은 이것을 한자리에 모여 韓醫學부흥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全國醫生大會의 개최를 준비하게 되었고 아울러 이 자리를 기회로 韓醫學術雜誌의 재간행도 추진키로 계획하게 되었다. 전국에서 770여명의 의생들이 모여 이루어진 이 대회와 강연회와 좌담회 등에서 韓醫學術雜誌의 간행이 역설되었다.⁷⁾ 이듬해에 나온 『東醫報鑑』은 바로 이 대회의 결실인 것이었다. 이 잡지는 1916년 1월 1일에 이 대회에서 결성된 全鮮醫會⁸⁾가 창간한 학술기관지로서 같은 해 3월 1일에 제 2호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 마저도

5) 1913년에 醫生제도가 만들어진 후 여기에 등록된 동의들이 만든 조직으로 洪鍾哲이 초대회장을 맡았다.

6) 1910년에 한의학의 쇠퇴를 안타깝게 여긴 명망있는 東醫學자 8명이 東醫學의 진흥과 부활을 위하여 동맹을 맺었는데, 이것이 八家一志同盟이다. 그 구성원으로는 나이순으로 林赫東, 洪鍾哲, 韓秉璉, 林炳厚, 金寬植, 趙炳瑾, 田光玉, 金永勳 등이다. 이들 중 洪鍾哲과 조병근이 한의학잡지 발행의 실무를 주도하였다. 洪鍾哲(1852-1919)은 잡지의 발행인으로서 또한 의학강습소의 소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중형, 『晴崗醫鑑』, 성보사, 서울, 1984. p.487)

7) 이중형, 위의 논문.

8) 1915년에 서울에서 일제가 개최한 산업박람회격인 공진회를 틈타 전국의 동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동단결할 수 있는 전국의생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전국에서 770여명의 의생들이 모여 강연회와 좌담회 등을 열었다. (이중형, 위의 논문)

5월에 전선의회 청산회라는 해체식을 가진 후 전선의회가 해체되면서 동시에 폐간되고 말았다.

韓醫學을 부흥시켜 민족의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보자는 열망이 전선의회의 해체와 『東醫報鑑』의 폐간으로 꺾이자 한의계의 인사들은 새로운 學術雜誌를 간행하여 분위기를 쇄신하자고 뜻을 모으게 되었다. 이에 뜻이 모아지자 洪鍾哲, 趙炳瑾⁹⁾ 등은 전선의회의 청산자금을 인수하여 『東西醫學報』라는 잡지를 간행하게 되었다. 이 잡지는 『東醫報鑑』이 이름을 바꾸고 속간된 것으로 1916년 6월부터 간행되어 1917년 6월 제 8호까지 나오게 되었다. 『東西醫學報』는 이전의 韓醫學 계몽 성격의 『漢方醫藥界』, 『東醫報鑑』과 달리 강의록 형식의 學術雜誌로 출발하였다. 주로 公認醫學講習所¹⁰⁾에서 강의된 내용을 싣고 있는데, 그 내용은 東醫學과 西醫學을 망라하고 있다. 잡지의 이름에 ‘東西醫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東西醫學을 두루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 당시 한의들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東西醫學報』는 매월 발행을 원칙으로 洪鍾哲을 저자 겸 발행인으로 하여 발행하였으나, 제 6호부터는 의학강습소 소장인 洪鍾哲은 강습소의 일에만 전념하고, 대신에 趙炳瑾이 편집인을 金光淳이 발행인을 맡아 계속 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쇄물의 발행이 경무총감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시대적 이유로 제 때에 발행되지 못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¹¹⁾ 이 잡지도 자금난에 의해 제 8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그 후에 趙炳瑾이 일본인 靑柳綱太郎¹²⁾의 명의로 1918년 3월에 『東西醫學報』의 이름을 『朝鮮醫學界』로 고쳐 다시 속간하였다. 『朝鮮醫學界』제 1호가 『東西醫學報』의 제 9호와 같은 셈인 것이다. 『朝鮮醫學界』제 1호 목차에 ‘『東西醫學報』제 9호 改’라는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朝鮮醫學界』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東西醫學報』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朝鮮醫學界』의 내용들 대부분이 『東西醫學報』로부터 이어져 온 연재물들임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朝鮮醫學界』도 1919년 2월까지 제 10호를 낸 후, 같은 해 9월에 나온 제 11호를 끝으로 폐간되고 말았다.

9) 1868년에 태어난 그는 八家一志同盟의 회원으로 잡지발행의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洪鍾哲이 잡지발행의 일을 떠난 후에는 『朝鮮醫學界』의 부사장으로 활동을 하였다. 전선의회의 감사부장을 역임하였다.

10) 1905년에 설립된 동계학교가 3년만에 폐교된 후 1908년에 洪鍾哲, 조병근 등이 東醫學 강습소를 개설하여 강좌를 시작하고, 1912년에 경성부의 허가를 얻어서 ‘공인의학강습소’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도 1919년에 폐소되고 만다. (이중형, 위의 논문)

11) 『東西醫學報』는 매월 발행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그 발행 간격이 두 달이 될 때도 있었고, 발행일자 또한 불규칙하게 발행이 되었다.

12) 일본인 의사로 東醫學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朝鮮醫學界』의 사장으로 지내면서 동 잡지에 ‘健康長壽養生論’이라는 글을 연재하였다.

3·1운동 이후에 발간된 『東西醫學研究會月報』는 1923년 12월에 동서의학연구회에서 韓鳳熙¹³⁾를 발행인으로 하여 발간한 것인데, 이 잡지도 그 출발은 의욕적이었으나 1924년 9월까지 제 6호를 발행한 후, 1년여 후인 1925년 10월에 혁신 제 1호를 발행하고 폐간되었다.

그로부터 10여년 후에 발간된 『東洋醫藥』은 1935년 1월에 동서의학연구회에서 조현영이 발간한 것인데, 이 잡지도 창간 당시의 의욕은 드높았으나 같은 해 5월에 발간된 제 3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日帝時代의 韓醫學術雜誌는 『漢方醫學界』로부터 『東醫報鑑』을 거쳐 『東西醫學報』, 『朝鮮醫學界』, 『東西醫學研究會月報』, 『東洋醫藥』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 명맥을 이어갔다. 이 기간동안 발간된 잡지의 총수는 모두 33권이다.¹⁴⁾

2. 한의학잡지의 발간 목적

『韓方醫學界』, 『東醫報鑑』, 『東西醫學報』, 『朝鮮醫學界』, 『東西醫學研究會月報』, 『東洋醫藥』 등에서 밝히고 있는 이들 學術雜誌의 발간 목적은 여러 가지이지만 크게 두 가지로 갈래를 칠 수 있다.

첫째는 韓醫學의 폐절을 막고 韓醫學의 연속성을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었고, 둘째는 韓醫學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전자의 목적은 『漢方醫藥界』, 『東醫報鑑』, 『東洋醫藥』 등에, 후자는 『東西醫學報』, 『朝鮮醫學界』, 『東西醫學研究會月報』 등에 잘 나타나 있다.

『漢方醫藥界』에서 밝히고 있는 본 잡지의 발간 목적은 ‘漢方醫學의 改良’이다. 이는 잡지의 첫머리에 실린 崔在學의 글에서 잘 볼 수 있는데, 그는 ‘한방의학의 개량’이 진찰기구, 약재의 응용, 병원설비 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외의 朝鮮醫生會의 간부들의 여러 글들을 통하여 『漢方醫藥界』의 발간 목적이 ‘한방의학의 개량’을 통한 韓醫學의 연속성 유지임을 잘 알 수 있다.

『東醫報鑑』은 전선의회의 학술기관지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발간된 잡지이다. 이 또한 韓醫學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은 전선의회에 참가한 여러 저명한 한의들의 논설과 강연 등을 통하여 잘 알 수

13) 東西醫學研究會 編輯部長

14) 이종형은 위의 논문에서 이들 논문이 모두 32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東西醫學報』의 제 4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필자가 본 논문의 텍스트로 삼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 역사자료관 보관본에도 제 4호는 빠져 있으나, 이들 잡지의 저본이 된 서적과 잡지의 목차 나열 등을 비교해 본 결과 제 4호는 원래부터 빠진 결본이 아니라 보관상의 이유로 잃어버린 것이 분명하다.

있다. 특히, 金允植¹⁵⁾은 본 잡지의 발간사에서 편견을 고수하는 아집을 버리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학본연의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힘쓰자고 역설하고 있다. 이외에도 韓醫學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들이 엿보이는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를 통하여 『東醫報鑑』의 발간목적이 학술기관지로서 여러 한의들을 계몽시켜 韓醫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東洋醫藥』의 발간 목적은 제 1호에 실려 있는 창간사에 잘 나타나 있는데, ‘東洋醫學을 재인식하고 동시에 서양의학을 재검토하여 종래의 한의학을 무조건 멸시하던 과오를 고치고 洋醫學을 무조건 숭배하던 迷妄을 깨뜨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양의학의 현대화’, ‘동양의학의 민중화’, ‘동양의학의 학술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1920년대까지 시도된 동서의학의 회통에 한계를 느낀 한의학자들이 당시의 민족주의 경향의 사회적분위기에 편승하여 동의학으로의 귀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잡지를 발간하였음을 알 수 있다.

『東西醫學報』는 당시 서울에 있던 公認醫學講習所에서 강의한 내용을 실은 강의록 형식의 잡지이다. 이는 강습소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한의들에게 교육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취지가 『東西醫學報』 제 1호에 실려 있는 ‘序’와 ‘범례’에 잘 나타나 있다. ‘序’에서 洪鍾哲은 한의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 잡지를 통하여 의학강습소의 교육내용을 익혀 韓醫學을 더 발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위기에 처한 韓醫學을 구하는 길은 꾸준히 학문연마를 하여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凡例’에서는 東醫學과 西醫學 각 과목의 수록 배경과 의의, 기타 醫理 등을 수록한 목적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東西醫學報』의 발간목적이 韓醫學 학술발전을 도모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朝鮮醫學界』의 간행목적은 『東西醫學報』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朝鮮醫學界』는 西醫學과 東醫學 각각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방법으로 의학을 발전시키자는 목적 하에 『東西醫學報』에서부터 연계한 東醫學과 西醫學의 匯通과 관련한 글들을 연속적으로 실고 있다. 이는 『朝鮮醫學界』의 목적이 『東西醫學報』의 연장선상에서 학문적인 발전을 도모한 것임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東西醫學研究會月報』의 발간 목적은 그 제목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동서의학의 회통’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창간호에 있는 金性璠¹⁶⁾의 창간사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는 여기에서 동의학과 서의학을 질병에 적합토록 시술하여 백성들을 구제토록 하자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한봉회는 같은 호의 告辭에서 동의학

15) 1835년에서 1922년까지 살았다. 중추원의장과 대제학을 역임하였다.

16) 1879 ~ ?. 號는 晴峯. 東西醫學研究會會長.

은 溫涼, 補瀉, 서의학은 解剖, 注射라는 각각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3. 韓醫學術雜誌를 통해 살펴본 日帝時代 한의계 동향

일제강점기를 맞아 韓醫學의 존립근거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상황 하에서 한의들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韓醫學부흥론의 대두, 韓醫學 교육의 강화, 위생론의 대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韓醫學부흥론의 대두

수천 년간 민족의 건강을 수호해온 韓醫學이 일제가 강점한 후에 설자리를 잃게 되고 명맥마저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은 韓醫學을 사랑하는 한민족의 슬픔이었다. 韓醫學의 폐절은 민족 전통문화의 폐절이며 일제의 약육강식 논리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를 대세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에 韓醫學者들을 중심으로 韓醫學의 부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노력은 『漢方醫藥界』, 『東醫報鑑』, 『東洋醫藥』 등에 나오는 여러 글들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부흥을 위한 노력들은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최재학은 『漢方醫藥界』 제 2호에서 ‘한방의학의 개량’이라는 논설을 통하여, 韓醫學의 개량할 점을 역설하고 있는데, 그는 한방의학이 개량해야 할 것을 진찰기구, 약재응용, 병원설비 등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개량에 개인의 역량을 모음으로써 韓醫學의 부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韓醫學의 잘되고 안 되고는 모두 한의 자신들의 책임이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고 말하며, ‘臨病以誠’, ‘用藥以誠’, ‘處方以誠’의 세 가지를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할 때 갖추었다면 백성들의 크고 작은 병들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東醫報鑑』 창간호에서 김윤식은 발간사를 통하여 ‘편견을 고수하는 아집을 버리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학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 韓醫學을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東洋醫藥』 창간호에서 金永勳¹⁷⁾은 ‘今日의 急務인 朝鮮人의 醫療問題에 對하여 가장 便利하고 容易하고 理想的인 東洋에 特殊한 在來의 漢方醫藥 卽 이것으로써 學校도 設立하고 이것으로써 病院도 創建하여 우리朝鮮民族의게 조금이라도 裨益이 될가 하는 意圖에서 起因하여 우리 民族中 有情有心하고 有意有志한 人士의게 此 漢方醫學復興論을 提唱한는 所以요 偏僻의으로 東西醫藥의 孰長孰短과 何優何劣을 論코

17) 1882 ~ 1974. 號는 晴崗. 關가일지동맹의 한사람으로 同濟醫學校 敎수를 역임하였다. 全鮮醫會 敎사 부원, 東西醫學研究會 회장, 경기도의생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저서로는 『壽世玄書』가 있다.

자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여 한방의학의 부흥이 당시의 의료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급선무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韓醫學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자는 주장들은 많은 한의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실천으로 이어져서 韓醫學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다.

집단적인 노력을 잘 보여주는 글로는 『東醫報鑑』 창간호에 실린 장기학의 ‘敬告我全鮮醫生’라는 글이다. 그는 이 글에서 “무릇 우리 전선의생은 이를 반성하지 않으면 안되니 친구활용하고 장족진진할 목적으로 전선의회에 힘을 합할 것이로다. 동의의 발전과 쇠퇴는 이 회의 완성여부에 있으니 어찌 경계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여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두려워하지 말고 학문연구에 정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전선의회에서 韓醫學의 부흥을 위하여 ‘의학회조직’, ‘의학회보간행’, ‘약재수용의개량’ 등의 삼대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삼대의안의 내용은 조직적인 韓醫學부흥운동을 위한 행동강령같은 것으로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아 좋은 결과를 얻었다.

2) 韓醫學교육강화론

일제강점기 이후 일제의 韓醫學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의들을 양성하기 위한 韓醫學교육의 노력은 계속 되었다. 1906년에 세워진 同濟醫學校¹⁸⁾, 1909년에 조직된 大韓醫士會 등은 이러한 노력을 잘 나타내 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同濟醫學校는 개교한 지 3년만에 문을 닫게 되고, 이름을 조선의사연찬회로 바꾸고 東西醫學강좌를 열심히 진행한 대한의사회도 한일합방이 되고난 후에는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상황이 악화되었지만 그럴수록 韓醫學교육에의 열의는 더욱 높아져서 급기야는 개인이 세운 강습소형태의 교육기관이 등장하게 된다. 洪鍾哲, 이해성, 조병근 등이 맡기 하여 만들어진 공인의학강습소가 바로 그것이다. 이 강습소는 1908년에 서울의 사동에 설립되어, 1912년에는 수문동으로, 1915년에는 와룡동, 1916년에는 익선동, 같은 해에 재동 등지로 옮겨가며 강의를 하였다. 본 강습소에서는 東醫學과 西醫學의 강의를 모두 진행하였고, 교보재비 및 소모비는 洪鍾哲이, 교과서 인쇄비는 조병근이 각각 사비를 분담하여 충당하였다.

이러한 강습소가 모태가 되어 『東西醫學報』, 『朝鮮醫學界』 등의 學術雜誌가 발간되면서 이 시기의 韓醫學교육이 활성화된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힘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항상 순탄하게 강습소의 일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경제적인 이유로 西醫學의 강의를 중단되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

18) 동제의학교에 관해서는 표천근의 「동제의학교의 의사학적 의의」 참조.

었다. 1913년에는 洪鍾哲의 명의로 의학강습소의 공인을 받고, 1916년부터는 東醫學과 西醫學을 모두 강의하며 본격적인 교육을 하게 되었다.

비록 작은 규모의 강습소에 지나지 않지만, 강습소에서 수강한 수강생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한의들도 본 강습소에서 발행한 잡지를 통하여 교육을 받았기에, 공인의학강습소의 교육효과는 자못 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차례의 졸업식을 통하여 많은 수의 졸업생이 졸업을 하였다. 이는 비록 당시에 서양의학을 강의한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졸업생보다 적은 숫자였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졸업생을 한의인력으로 배출시킨 그들의 노력은 높이 사야할 것이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동서의학연구회의 각 지부마다 강습회를 열고 지속적인 강좌를 행함으로써 한의들의 재교육에도 힘썼음을 알 수 있다.

3) 衛生¹⁹⁾論의 대두

日帝時代 한의들에게 위생에 관한 의식이 많이 강조되었다. 이는 당시에 세워진 서양식 의원들의 설비나 시설 등을 둘러본 한의들이 스스로 자각하여 생겨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러한 위생에 대한 노력을 한의들 스스로가 먼저 솔선수범하고자 했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위생에 대한 노력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는 개인위생, 의복위생, 병원위생 등으로 『東醫報鑑』 창간호와 제 2호에 있는 ‘우리約條’라는 글을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며, 반드시 화려하게 꾸미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청결히 하자는 것으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약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여부를 살피기 위하여 진선의회에서는 수시로 위원을 파송하여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위생론의 대두는 서양의학의 영향으로 한의계 내부에서 생겨난 각성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이 학문적으로는 전염병에 대한 관심을 이시기 한의들이 많이 가지게 되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4. 韓醫學術雜誌에 나타난 日帝時代 韓醫學術경향

상술한 韓醫學부흥론은 옛부터 내려오는 韓醫學을 무조건적으로 굳게 지켜 귀를 닫아버림으로서 이룩하자는 것이 아닌, 새로운 문물에 대한 경계를 풀고 그것들을 받아

19) 위생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근대이전부터 쓰이던 단어로, 당시에는 養生의 의미로 쓰였다.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용어를 한자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세균, 전염병 등과 연계된 의미의 개념으로 쓰이게 되었는데, 본 논문에서의 위생은 현대적인 개념의 위생을 뜻한다.

들여 우리 것으로 흡수하여 새로운 韓醫學을 이룩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東西醫學報』, 『朝鮮醫學界』, 『東西醫學研究會月報』 등을 중심으로 주장되었는데, 이 들 잡지에서는 공인의학강습소에서 강의한 東醫學과 西醫學의 강의록을 교과과정에 따라 매회마다 연재하여 한의학도-의생-의 배출과 기존의 한의들을 재교육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이시기의 韓醫學術경향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당시의 한의계의 학술경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溫故知新的의 韓醫學

이 시기 韓醫學은 여전히 전통적인 韓醫學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다. 이는 韓醫學의 전통이 말살되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것을 잘 앎으로 인하여 새로운 韓醫學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당시한의학들의 자각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1) 『內經』을 통한 經典 중심의 韓醫學

韓醫學術雜誌에 연재된 의학강습소의 東醫學강의 중에는 『內經』을 기본적인 텍스트로 삼아 강의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病理學, 診斷學, 脈經, 外科學 등이다.

‘病理學’이라는 제목 하에 네 편의 『內經』 원문을 인용하여 질병의 원인 및 발병기전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韓醫學의 기초적인 이론으로 韓醫學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과정의 첫머리에 놓고 있다. 또한, 이들 편을 별다른 설명 없이 원문만을 수록하여 놓은 것으로 보아 당시의 강습소 학생들이 이들을 다 암송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여 이를 통하여 韓醫學의 기초를 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단법도 또한 『內經』의 여러 편들을 암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익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內經』에 나와 있는 진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당시 서양의학의 기계를 통한 진단법이 많이 수용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단법 강의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韓醫學의 진단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그것에 대한 자부심의 방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脈經’에서는 여러 편의 소제목으로 ‘맥’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한 『內經』의 여러 편을 근간으로 하고 부차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內經』을 인용하여 맥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韓醫學에서 진단의 큰 대강이 되는 ‘맥’에 대한 정상, 비정상 그리고 그에 대한 치료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韓醫學에서 진단에 있어서 ‘맥’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 시기 한의들은 매우 잘 자각하고 있었으며, 이를 숙지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여겨진다. 서양의학의 진단기

기가 많이 알려지고 대두 뒬에도 불구하고 맥진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가 높았던 것은 당시 한의들의 韓醫學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을 잘 나타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外科學’에서는 외과학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을 하면서 『靈樞·癰疽 第八十一』의 전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먼저 응저에 대한 개괄적이 설명을 한 후에 응저의 발병 부위에 근거하여 각종 응저의 명칭을 열거한 후 각각의 증치와 예후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응저의 병리와 증상상의 주요 감별점도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病理學, 診斷學, 脈經, 外科學 등 네 강좌에서 『內經』의 암송, 강론 등의 방법으로 韓醫學강의가 이루어진 것을 통해 韓醫學을 경전 중심으로 교육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이 시기에도 여전히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傷寒論』, 『金匱要略』을 통한 상한과 잡병에 대한 연구

韓醫學術雜誌에 연재된 의학강습소의 강의에는 상한과 잡병에 대한 강의도 있었다. 이들 강의는 唐宗海의 저작을 저본으로 삼고 있는데, ‘상한학’에서는 『傷寒論淺注補正』의 내용을, ‘잡병학’에서는 『金匱要略淺注補正』의 일부 내용을 차례로 신고 있다.²⁰⁾

상한학의 강의는 첫머리에 ‘熱病者 皆傷寒之類也’(『素問·熱論篇 第三十一』)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처럼 상한의 연구 또한 『내경』의 이론적인 바탕 위에서 唐宗海의 저작 중 주석에 해당되는 중요부분을 뽑아 강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잡병학 또한 같은 맥락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金匱要略』의 원문에 주를 단 형식의 서술로 잡병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잡병학의 강의를 통하여 韓醫學에서 다룰 수 있는 제반 질병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東醫寶鑑』의 활용

조선 후기로 오면서 『東醫寶鑑』을 요약한 형식의 방서들이 많이 출현하였다. 따라서, 『東醫寶鑑』을 근간으로 연구하면서 새로 나온 서적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日帝時代까지도 계속 되었는데, 學術雜誌를 통하여 살펴본 이시기의 한의들은 『東醫寶鑑』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행하였으며, 이를 韓醫學 교육에 잘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는 『東西醫學報』 창간호에 있는 ‘진단학’과 ‘약물총론’에서 잘 살펴볼 수

20) 『東西醫學報』 제 2호 ~ 『朝鮮醫學界』 제 11호.

있다.

이처럼 日帝時代 한의들은 『東醫寶鑑』에 관한 연구를 교육에 인용하여 쓸 정도로 깊이 있게 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조선시대로부터 이어져 한국 韓醫學의 전통을 그대로 잇고 있는 경향의 반영인 것이다.

(4) 四象醫學의 연구

일제시대에는 사상의학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임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東醫報鑑』 제 1호에 있는 ‘診法の 最要’라는 글에서 崔東燮은 고대에도 기질의 구분이 있었다고 말하며, 氣勇人, 血勇人, 神勇人, 骨勇人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특히, 이들 기질을 각각 사상의학의 太陽人, 少陽人, 少陰人, 太陰人에 대응시키고 있는데, 이를 또 서양의학자 크레츠머의 사체질인의 성격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사상의학에 대한 당시인들의 견해를 엿볼 수 있다. 또한, 都殷珪²¹⁾는 『東西醫學研究會月報』에서 ‘四象醫學의 解說’이라는 글을 통하여 四象醫學의 발생배경에 대하여 서술하고, 李濟馬의 학문적 깊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四象醫學은 순전히 性理道德에 바탕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설명하고, 제 1장 ‘性命論’의 문장을 차례대로 나열하면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2) 韓醫學과 서양의학의 匯通

(1) 唐宗海의 匯通사상²²⁾

밀물처럼 밀려오는 서양의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당시의 한의들은 중국의 중의사의 고민을 학습하여 활용하고자 한 노력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 韓醫學術雜誌에 연재된 의학강습소의 東醫學강의 중 東醫學과 西醫學을 융합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있는데, ‘臟腑論’, ‘血證論’, ‘本草問答’ 등이 그것이다. 이들 강의는 청나라 唐宗海의 ‘中西匯通’의 사상과 그 맥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唐宗海가 지은 『中西匯通醫書五種』 중의 일부내용을 그대로 옮겨 싣고 있는데, ‘장부론’은 『中西匯通醫經精義』의 내용을, ‘혈증론’은 『血證論』의 내용을, ‘본초문답’은 『本草問答』의 내용을 각각 일부 혹은 전체를 그대로 옮겨 적고 있다.

『東西醫學報』와 『朝鮮醫學界』에 연재된 ‘장부론’에서 이를 인용한 것은 唐宗海의

21) 1890 ~ ?. 호는 稚槐. 東西醫學研究會 咸南地方部長.

22) 唐宗海(1862~1918)는 그의 저작인 『中西匯通醫書五種』을 통하여 ‘中西匯通’이라는 말을 제시하였다. 그는 중국전통의약을 보존하고 발양시키기 위하여 중의학이 비과학이 아님을 증명하기에 힘썼다. 또한, 東西醫學에 각각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니, 일부 서양 해부생리학 지식을 흡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中西匯通’의 정신이, 일제하에 퇴색해가는 東醫學의 살길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데서 기인한 듯하다.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 겪었던 근대중국의 혼란기에 중의학 또한 혼란과 왜곡을 겪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唐宗海의 노력이 ‘中西匯通’의 시도로 나타난 것처럼,²³⁾ 이러한 唐宗海의 노력과 유사하게 일제하 韓醫學者들도 西醫學의 이론과 東醫學의 이론을 아울러 배워서 의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東醫學의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한의들이 이처럼 다른 사람의 저작을 배우고 익히는 방법이 단순히 서적의 내용을 옮겨 적는 수준이 아니라 그 내용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들 내용에 대하여 독자와 잡지의 편집진 사이의 토론이 심도있게 행하여진 것²⁴⁾으로 보아 잘 알 수 있다.

(2) 서양의학의 장점을 취함

韓醫學術雜誌에서는 西醫學강의도 심도있게 이루어 졌다. ‘解剖生理學’, ‘診斷學’, ‘藥物學’, ‘傳染病學’, ‘外科學’ 등의 강의 내용은 당시의 서양의학을 강의하였던 학교의 강의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이러한 西醫學강의는 『朝鮮醫學界』, 『東西醫學研究會月報』로 넘어오면서 양이나 질 모두에서 더욱더 심도 있는 강의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서양의학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여 그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입장에서 서양의학을 받아들여, 韓醫學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²⁵⁾ 이러한 시도는 『東醫報鑑』에서 일본인 서의사들이 쓴 전염병과 외과학에 대한 글을 신고 있는 것²⁶⁾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양의학의 수용태도는 그 장점을 취하자는 의도와는 다르게 무조건적인 수용을 통하여 억지로 ‘동서의학’이라는 단어에 맞추려고 하는 변질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3) 서양의학의 강좌가 이루어진 이유

이와 같이 서양의학 강좌가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의 의생선

23) 양성완. 『中西匯通醫經精義』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24) 『東西醫學報』 제 5호. 창원에 사는 金鎮煥이라는 의생이 보낸 질의에 대하여 『東西醫學報』의 편집부가 답을 하였다. 방광, 삼초, 명문 등을 서양의학적 이론으로 설명한 부분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다.

25) 『朝鮮醫學界』 제 1호의 첫머리에서 조병근은 논설을 통하여 서양의학과 東醫學의 각각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방법으로 의학을 이룩하는 것이 지금 의학계의 대세라고 말하고 있다.

26) 『東醫報鑑』 제 1호, 제 2호.

발 시험문제²⁷⁾가 韓醫學 관련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고, 서양의학과 자연과학이론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과도 관련이 깊다. 일제가 韓醫學을 말살하려는 기도의 하나로 실시한 의생선발시험은 韓醫學을 서양의학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나가려는 점진적인 시도였다. 이러한 기도에 이용된 결과물이 의생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이러한 강좌와 같은 공여지책을 강구하게 한 것이다.

5. 韓醫學術雜誌의 의의

日帝時代에 발간된 韓醫學術雜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지닌다.

먼저, 韓醫學의 폐질을 막고 그 명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의생제도라는 고식적인 의료제도가 韓醫學을 말살하려는 시도임을 알아차린 한의들이 이를 막고자 노력할 때, 한의들의 단합을 이루어 내는 가교역할을 하였다.

둘째, 學術雜誌에 연재된 의학강습소의 강의는 강습소 내의 수강생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수강한 학생들이 의생이 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강습소 출신뿐만이 아니라 강습소 밖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많은 수가 의생으로 배출되었다.²⁸⁾

셋째, 學術雜誌 간행 등을 통한 韓醫學 지키기 노력은 1920년대 이후의 東西醫學研究會 활동, 1930년대의 韓醫學부흥운동 등 일제시대 한의계의 다양한 활동에 영향을 끼쳤다. 1930년대의 언론에 연재된 韓醫學 이론논쟁을 통한 韓醫學부흥운동 등은 모두 日帝時代의 上述한 韓醫學術雜誌 발행을 통한 韓醫學 지키기 노력이 촉매제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결 론

日帝時代 韓醫學術雜誌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론을 얻었다.

1. 日帝時代의 韓醫學術雜誌는 1913년에 발간된 『漢方醫藥界』가 그 효시가 된다. 전

27) 1917년 5월 19일 경기도 경무부에서 행한 의생시험의 문제 (『東西醫學報』 제 8호)

1. 猩紅熱에 就호야 知호는 바를 記호라
2. 亞細亞虎列刺에 就호야 知호는 바를 記호라
3. 麻疹의 療法을 記호라
4. 副辜丸炎(囊癰)의 症狀과 療法을 記호라
5. 徽瘡, 徽毒의 療法을 記호라

28) 1918년 현재 의학강습소의 졸업생은 6회에 걸쳐 배출되어 총 159명이 졸업을 하였으며, 이들 중 의생 면허를 획득한 사람은 52명이다. (『朝鮮醫學界』 제 4호)

선의회를 계기로 1916년에 발간된 『東醫報鑑』과 『東西醫學報』, 『朝鮮醫學界』, 『東西醫學研究會月報』, 『東洋醫藥』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발간된 잡지의 총수는 모두 33권이다.

2. 韓醫學術雜誌 간행의 주목적은 의학강습소에서 강의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여 당시 韓醫學을 업으로 하는 의생들, 韓醫學徒 등에게 韓醫學 학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었다.
3. 韓醫學術雜誌에 연재된 의학강습소의 강의내용은 『內經』, 『傷寒論』 등 經典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 韓醫學을 중요시 하고 있다.
4. 韓醫學術雜誌에 연재된 의학강습소의 강의내용은 東醫學과 西醫學을 융합하고자 하는 노력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청나라 唐宗海의 ‘中西匯通’의 사상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5. 韓醫學術雜誌에 연재된 의학강습소의 강의내용을 통해서 서양의학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여 그것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자는 정신이 짙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6. 日帝時代 한의들은 衛生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며, 또한 전염병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었다.
7. 韓醫學術雜誌에 연재된 의학강습소의 강의내용은 다수의 의생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8. 日帝時代 韓醫學術雜誌 간행 등으로 고조된 韓醫學 지키기 운동은 東西醫學연구회의 활동, 韓醫學부흥운동, 언론에 연재된 韓醫學 이론논쟁을 등 일제시대 한의계의 다양한 활동에 영향을 끼쳤다.

<參考文獻>

- 1) 기창덕. 『韓國近代醫學教育史』, 도서출판 아카데미아, 서울, 1995.
- 2) 김두중. 『韓國醫學史』, 탐구당, 서울, 1998.
- 3) 김적. 「韓國最近世 東洋醫學의 學術的 특징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 4) 唐宗海. 『中西匯通醫書五種』, 동남출판사(영인), 서울, 1984.
- 5) 맹웅재 외. 『韓國醫藥人名事典』, 의성당, 서울, 1991.

- 6) 신동원. 「일제의 보건의료 정책 및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6.
- 7) 신중완. 「日帝侵略에 의한 韓方醫療制度廢絶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8) 양성완. 「『中西匯通醫經精義』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9) 이종형. 『晴崗醫鑑』, 정보사, 서울, 1984.
- 10) 이종형. 「韓國東醫學史」, 한국현대문화사대계,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서울, 1977.
- 11) 홍원식. 『黃帝內經素問』, 전통문화연구회, 서울, 1993.